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110-612

책임간사: 박천석 (010-2942-3791)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958 (예금주 백은진)

박근혜에 맞서 싸우기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선택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에 투표를!

1차 투표에서 기호2번이 최다 득표

조합원들은 “박근혜와 맞짱”을 선택했다

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조가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해 결선에 올랐다. 한상균 후보조가 국민파-중앙파-전국회의 최대 정파 연합인 기호 4번 전재환 후보조를 누르고 1위에 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상균 후보조가 최다 득표를 한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파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첫째,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는 노동자들에게 파상공세를 퍼붓는 “박근혜와 맞짱” 뜨겠다며 2015년 총파업을 단연 강조했는데, 바로 여기에 조합원들이 화답한 것이다.

반면, ‘현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투쟁을 2016~17년으로 미룬 기호4번 전재환 후보조의 주장은 이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1차 투표 결과는 조합원들이 박근혜에 맞서 싸우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자, ‘현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기호4번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다.

둘째, 현장에서 투쟁을 이끌어 온 후보들의 면모가 “2015년 총파업” 공약과 잘 맞아 떨어지면서 조합원들의 믿음을 얻은 것이다. 한상균 후보는 쌍용차 77일 점거파업의 선봉장으로, 이영주 후보는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반면, 기호4번 후보조는 “준비된 통합지도부”임을 강조했지만, 오랫동안 민주노총 상층에 머문 그들의 경력은 조합원들의 호감을 얻지 못했다. 최대 정파들이 연합을 하고도 30퍼센트 남짓 득표에 머문 것이 그들이 집행한 지난 10년에 대한 조합원들의 냉혹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조합원들은 노련해 보이는 상층 관료가 아니라, 투박해 보이지만 박근혜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현장 투사 후보들을 선택했다. 이것은 투쟁하는 민주노총으로, 말대로 싸우는 지도부로 바뀌 보자는 조합원들의 열망을 보여 준 것이다.

기세를 모아 결선 승리

기호2번 짝고 함께 투쟁 조직을 시작하자

지금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 비정규직 확산, 민영화, 정규직 정리하고 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악 등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느냐에 노동자들의 삶이 달렸다.

특히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중요하다. 한상균 후보조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박근혜와 맞짱”의 최전선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전 조직적 차원에서 대응해 반드시 승기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결선에서 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조가 당선한다면, 민주노총이 박근혜의 노동자 죽이기 독주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질 것이다. 투쟁을 원하는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은 크게 자신감을 얻을 것이고, 머뭇거리던 조합원들도 지도부의 공식 투쟁 호소에 응하면서 투쟁의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를 당선시키고 함께 투쟁 조직을 시작하자.

박근혜의 정규직-비정규직 이간질, 공공-민간부분 이간질에 맞서 단결해 투쟁한다면, 장기 불황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막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로 총파업의 승기를 잡겠다”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는 당선 이후 첫 투쟁 과제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로 삼았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파업과 전교조의 연가파업을 적극 옹호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공적연금 전반을 공격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 하므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한상균 후보조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전 조직적 투쟁으로” 제기한 것은 옳바르다.

반면 기호4번 전재환 후보조는 “단순한 저지 투쟁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범국민운동”(공무원노조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중)을 제시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공적

연금 강화’를 대립시킬 수 있는 모호한 태도다.

또, 전재환 후보조는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한다. 그러나 연일 배신을 일삼는 새정치연합에 기대서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공개적으로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개악안을 지지해 왔다. 심지어 문재인은 “정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잘하는 일”이라고 거듭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고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는 지도부가 필요하다. 한상균 후보조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로 승기 잡아 2015년 총파업”으로 이어가겠다고 한다.

최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해당사자의 입장도 듣겠다며 ‘국민 대타협기구’를 만들

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결정은 여야로만 구성된 ‘특위’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다. 겉으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들러리 세우고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런 사회적 합의기구는 ‘대화하는 동안에는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압력을 넣어 투쟁의 발을 묶는 구실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공무원이 참여하는 연금논의체 구성 [사회적 합의기구]”을 강조해 온 기호4번은 이에 대해 한마디 비판도 없다.

반면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는 옳게도 “여야가 언제든 공무원연금 개악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사회적 합의기구에 기대를 걸기보다 투쟁을 단호하게 확대해 나가야만, 정부를 압박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 옳다.

기호4번의 투쟁 전략 비판

투쟁 회피·야권연대로 박근혜를 막을 수 없다

기호4번 전재환 후보조는 1차 투표에서 드러난 현장의 정서에 압력을 받은 탓인지, 결선에선 “박근혜와 정면승부”, “2015년 총궐기투쟁”을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투쟁 전략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기호4번은 여전히 2015년 총파업은 불가능하다며 ‘준비된 투쟁’을 강조한다. 총파업은 “뺑파업”, “낡은 전략”이라는 것이다.

뺑파업? 문제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파업 철회·축소

그러나 그동안 총파업이 불발하며 ‘뺑파업’이 된 이유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파업 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하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이는 조합원들의 냉소를 부르고 사기저하를 낳았다.

즉, 투쟁을 회피해 온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의 관료주의가 진정한 문제다. 그러데 그 책임의 중심에 있는 기호4번 세력이 ‘현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조합원을 탓하는 것은 무책임한 적반하장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공세가 쏟아지는 지금, 강력한 파업 없이는 “박근혜와 정면 승부”도 불가능하다.

또, 기호4번은 총파업 주장을 “특정 정파”의 “고립된 돌출 행동”이라고 매도한다. 이는 1차 투표에서 조합원 33.5퍼센트가 2015년 총파업에 지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보여 주는 현장 정서를 외면하는 것이다.

무책임한 투쟁 대기론과 전략적 야권연대

기호4번은 2016~17년에 가서야 “준비된 투쟁”을 하자고 한다. 2015년 박근혜의 공세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이는 무책임한 투쟁 대기론이다. 그간 여러 집행부가 ‘준비해 싸우자’며 투쟁을 회피했다.

전략적 투쟁 시기를 총·대선으로 맞춘 것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는 불가피하게 전략적 야권연대로 귀결된다. 기호4번은 ‘야권연대를 변함 없이 추진하겠다’는 통합진보당을 진보대통합의 주요 파트너로 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에 기대서는 결코 개혁을 이룰 수 없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악에 힘을 실어주는 야합에도 동참했다. 전략적 야권연대는 투쟁의 발목을 잡고 정치적 독립성을 해칠 독이다.

“국민적 지지” 핑계로 투쟁 회피 말아야

기호4번은 투쟁을 늦추자는 근거로 “국민적 지지”를 모아야 한다는 이유를 든다. 그러나 철도 파업 등에서 보듯,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울 때 광범한 연대와 지지가 건설될 수 있다.

거꾸로 노조의 단호한 투쟁보다 “국민적 지지”를 앞세우는 논리는 투쟁 회피, 양보론의 핑계거리가 되곤 했다. 이런 논리로는 당장에는 “국민적” 인기가 없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정규직의 임금 방어 등을 위한 투쟁을 효과적으로 벌일 수 없다.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계급, 민중의 호민관이 되는 길은 단호하게 박근혜에 맞서는 것이다.